

PHOTO ESSAY 사진산책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독일 베를린

이호준 Lee, Ho-Joon • 언론학박사·포토에세이스트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강원도 양양

아름다운 자연이나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쾌감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이지만, '미적' 쾌감은 유전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이성적 경험의 영역이기도 하다. 감상 대상의 균형, 조화, 의미 등을 인식하며 느끼는 만족감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성과 이성이 만나는 미적 쾌감 유발 기법으로 여백과 패턴을 들 수 있다. 여백은 흔적 없는 공간이나 텅 빈 면(面)을 표현하는 것으로, 신비로움과 편안함을 선사한다. 패턴은 주로 인공구조물에서 나타나는 질서정연한 모습인데, 일정한 규칙을 반복함으로써 조화와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미적 쾌감을 깊이 느끼려면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능력, 즉 심미안을 갖춰야 한다. 심미안은 타고난 능력이기도 하지만, 경험과 꾸준한 관찰, 학습을 통해서도 계발할 수 있다. 예술과 미학적 사고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